



# Young Ok Moon Lee

JUN 1, 1941 - AUG 27, 2025



Scan to Visit



# Table of Contents

<b>Obituary</b> .....	Page 3
<b>Events</b> .....	Page 5
<b>Tribute Wall</b> .....	Page 6



# Young Ok Moon Lee

JUN 1, 1941 - AUG 27, 2025

**Y**oung Ok Lee, of Dallas, Texas, passed away on August 27, 2025 in Plano, Texas.

She will always be remembered as a loving mother, grandmother, sister, and friend to all that knew and loved her.

She was born on June 1st, 1941, in Seoul, South Korea to Mr. Moon Lee Sun and Mrs. Kim Duk Hee. She had three brothers and two sisters and was the second oldest among her siblings. Young Ok went to Jin Myung High School then Ehwa University where she graduated in 1962 with a pharmacy degree. In 1965, she married Mr. Lee Wan Joo and they had two sons. In 1974, Young Ok Lee immigrated to Dallas, Texas and then was joined by Wan Joo Lee and their two children in 1976. Once the family was back together, they moved from Dallas to Houston, Texas for other opportunities.

In 1978, Young Ok and her family decided to move back to Dallas to open up a business in Garland, Texas. Since then, she and her family have owned and operated several different business ventures throughout the DFW area. In addition to having a successful retail and wholesale business, Wan Joo and Young Ok were very dedicated to their Christian faith, attending numerous churches throughout Dallas and eventually started Dallas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on 11103 Dennis Road. After several years, they moved their church to 11722 Cromwell Drive and was later renamed to Dallas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Young Ok loved to travel and visited five continents throughout her journeys. She also loved being with family and friends sharing food, laughter, and joy.

Young Ok is survived by her sons, Sung Joon Lee and David Sung Ho Lee, her daughters-in-law Korey Lee and Cindy Lee and her grandchildren Tyler Lee, Morgan Lee, Amanda Lee, Preston Lee, and Grayson Lee.



## Obituary

**Young Ok Moon Lee**

JUN 1, 1941 - AUG 27, 2025

The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will be held at 12:30PM on Saturday, September 6th, 2025, at Templo Internacional Revive (formally known as Dallas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at 11722 Cromwell Drive, Dallas, TX 75220. Interment (Burial and Committal Service) will follow at Restland Cemetery, located at 13005 Greenville Avenue, Dallas, TX 75243.

텍사스주 달라스에 거주하던 이영옥씨가 2025년 8월 27일 텍사스주 플라노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영옥씨는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누나, 그리고 그녀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친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영옥씨는 1941년 6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문리선씨와 김덕희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세 명의 형제와 두 명의 자매가 있었으며, 형제자매중 둘째였습니다. 이영옥씨는 진명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약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5년 이완주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1974년 이영옥씨는 텍사스주 달라스로 먼저 이주했고, 1976년 이완주씨와 두 자녀가 함께 합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인 후, 그들은 다른 기회를 찾아 달라스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주했습니다.

1978년, 이영옥씨와 그녀의 가족은 텍사스주 갈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달라스로 다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가족은 DFW 지역 전역에서 여러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소매 및 도매 사업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달라스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마침내 데니스 로드 11103번지에 달라스 충현장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교회를 크롬웰 드라이브 11722번지로 이전했고, 이후 교회 이름을 달라스 새생명 장로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영옥씨는 여행을 좋아했고, 여행 기간 동안 5개 대륙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음식, 웃음, 기쁨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영옥씨의 유족으로는 아들 이성준과 이성호, 며느리 코리와 신디, 그리고 손주 타일러, 모건, 아만다, 프레스턴, 그레이슨이 있습니다.

천국환송예배는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텍사스주 달라스 크롬웰 드라이브 11722번지에 위치한 템플로 인터내셔널 리바이브(구 달라스 충현/뉴라이프 장로교회)에서 거행됩니다. 하관예배는 당일 오후 2시 30분에 그린빌 애비뉴 13005번지에 위치한 레스트랜드 묘지에서 갖습니다.




# Events


**Young Ok Moo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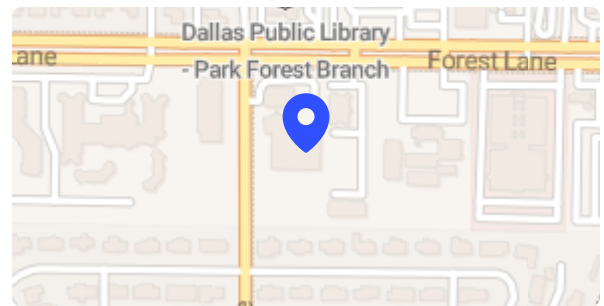
JUN 1, 1941 - AUG 27, 2025

##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Saturday**, September 6, 2025


 12:30 PM CT

 **Templo Internacional Revive**  
11722 Cromwell Dr, Dallas TX 75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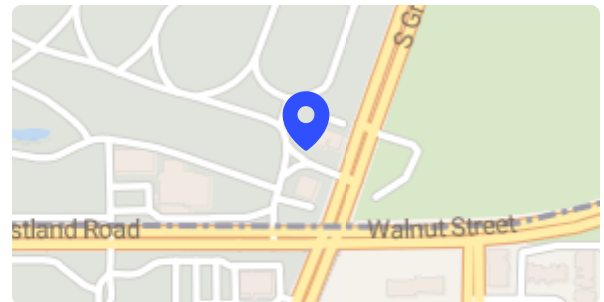


## Interment

 **Saturday**, September 6, 2025

 2:30 PM CT

 **Restland Memorial Park - Garden of Binnerri**  
13005 Greenville Ave. , Dallas TX 75243





# Tribute Wall

**Young Ok Moon Lee**

JUN 1, 1941 - AUG 27, 2025



**Judy And James** sent a Treasured Lilies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5 at 8:08 PM



**Anonymous** sent a Strength & Solace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4 at 12:50 PM



**Anonymous** sent a Lavender Reflections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4 at 12:48 PM



**Anonymous** planted a Memorial Tree in honor of Young.

September 4 at 12:48 PM



**Ira Adler** sent a Strength & Solace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3 at 4:06 PM



**Anonymous** sent a Country Basket Blooms to the Lee family.

September 3 at 2:44 PM





# Tribute Wall

**Young Ok Moon Lee**

JUN 1, 1941 - AUG 27, 2025



**Anonymous** sent a Sentiments of Serenity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3 at 11:16 AM



**Young Choi** posted:

항상 단정하시고, 절제된 모습의 권사님을 이제 하늘 나라로 보내 드리며, 지난 세월 속에 저희의 기억 속에 권사님을 그려 봅니다.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정신과 행동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던 모습에 권사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 생전, 권사님께서서는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물질과 시간 정성을 아끼시지 않으시던 그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던 분이십니다.이제, 연약한 육신을 벗어나고, 저 천국에서 환한 미소로 마중 나와 계실 장로님을 만나시면 장로님께서 다 하시지 못한 이세상에서의 남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고 돌아 오신 권사님을 두팔 벌려 맞이하실 장로님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세요.권사님!저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리고 이뤄 놓으신 사업체, 주변에 권사님을 존경하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 하실 권사님.저희들도 권사님을 기억하며, 권사님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이땅에서의 모든 염려과 고통 다 내려 놓으시고 평안히 쉬세요.사랑하며, 존경 합니다.최영석 장로 & 한명애 권사 올림

September 3 at 10:17 AM



**Kevin Shinn(Ceo)** sent a Sentiments of Serenity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2 at 8:57 AM



**German N Irma Bonilla** sent a Sentiments of Serenity Spray to the Lee family.

September 1 at 6:11 PM



**Deidra Cunningham** posted:

I am very sorry for your loss family. May beautiful memories comfort you through this difficult time. - Deidra Cunningham-

August 31 at 2:25 PM



# **Memories only last if you share them**

Join us in honoring Young by contributing to a collection of shared memories.



**Scan to Visit**

